

요즘은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뒤집어진 얘기가 많이 나온다. 얼마 전 미국의 한 회사가 자기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매겼는데 'AA+'로 했다. 이 회사라는 게 이름도 재미난 '스탠다드 앤 푸어스', 약자 '에스앤피'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에스앤피를 '패륜아'에 비유했다. "부모를 죽이고 나서 고아가 됐다며 자비를 호소하는 젊은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잠실에 있는 '00신용평가사'가 대한민국을 불량국가로 취급하는 것이다.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다."

그토록 잘 나가는 애플사는 아이패드 팔 때 매일할 한 장도 안준다. 박스 안에 달랑 감자떡 같은 거 하나뿐이다. 미국개발의 윈도우스 운영체제에서는 아비도 어미도 죽보도 필요 없다. 마우스로 한번 클릭 후 드래그해서 아무데고 속 집어넣으면 그만이다. 도스체제에서 보면 정말 반란이다. 파일 속에 들어가 들어가고 폴더 속에 드라 이브가 들어간다. 참으로 못된 집안에 못된 자식이다.

앞뒤가 바뀌어야 정상인 세상

우리도 이에 못지않다. 얼마 전까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하나도 너무 많다"로. 이제는 아기 낳는 게 동네 뉴스거리가 돼버렸다. 또 사람은 좌측, 차량은 우측 하더니 정말 노란 '우측

통행'의 경고관을 발견하게 된다. 전 국민의 1/10이 죽어나간 한국전쟁의 주범인 공산주의도, 북한도 이미 주적의 한계를 넘어서고 말았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내다관 종래의 공급자관 개념도 호호해져 소비자=공급자가 되고 이는 공산품뿐 아니라 신문, 방송 등 미디어매체까지 모든 사회에 새로운 개념이 됐다. 담배와 술은 젊은 층이 더 많이 소비하고 사립대가 국립대를 능가하며 초등학교 교사부터 사법연수원까지 여자가 1등을 하고 절대수사 역시 유행하다. 혼자 사는 세대수가 핵가족수를 넘어서고 보통의 맞춤형이 기성복보다 훨씬 싸다. 깨끗한 물을 먹여 보려고 수도꼭지와 씨름했는데 이 꼭지는 정수기로 교체되고 바야흐로 상수도보다

전매광장



문정기
광주전남과총 부회장

세상 뒤집어진 얘기

는 하수도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 언제부터 배설이 먹는 것보다 귀중하다는 걸 머릿속에 고려했는지 모르겠다. 이 모든 건 겨우 30년 이내의 얘기다. 언제인 줄 모르는데는 감쪽할 사이에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다. 그러면 뒤집어진 세상에서 뒤집어보는 얘기를 해보자. 순서로 보아서 그렇다.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아무래도 상당한 재치와 연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이 어 렷 교수는 "모든 예술 작품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곁에 드러난 그대로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했다. 겉으로 드러난 모든 의미의 본질은 안에 있어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다시 미국의 얘기이지만 '마이클무

어의 뒤집어보기'는 유명한 영화다. 미국 인도 뒤집어보면 된다는 걸 아나 보다. 같은 말도 뒤집으면 전혀 다른 뜻으로 들리기도 하며 독일말의 경우는 순서를 바꾸는 도 치법은 문장을 강조하는데 쓰인다. '입산 금지' 하는 곳에 폭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기 마련이다. '아빠, 나 과자 절대 안 먹었어' 하면 그 아이는 절대로 먹었다.

거꾸로 보고 진정한 의미 찾기

우리는 막 걸음을 떼는 아이들을 연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가랑이 사이에 머리를 넣고 뒤를 본다. 세상이 뒤집혀 보일 것이다. 이게 옳은지도 모른다. 우리가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온다. 다리부터 나오면 우리는 그 애를 '거꾸리'라 부른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학생의 단발머리를 가장 확실하게 자르는 법은 머리를 아래로 하여 반듯이 깎힌 다음 제자리에 세우면 된다고 한다. 우리의 삶도 뒤집어 보기를 통해 진정한 의미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다. 너무 흔하게 된 뒤집어진 또 다른 세상얘기는 계속될 것이며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나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심지어 상식을 의심하는 것. 현실을 조롱해 보는 것, 허튼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뒤집어 반역해 보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인지는 모르겠다.

독자광장

전동휠체어 전조등 부착해야

순찰을 하다보면 거리에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전동휠체어는 남의 도움없이 움직일 수 있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는 반면 그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유모차나 신체장애인의 자차의 경우에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도가 여의치 않아서인지 전동휠체어는 차도를 이용해 통행하고 있다. 그로인해 도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리어카, 전동휠체어 등이 마구 뒤섞여서 운행되고 있다. 또한 야간 운행시에는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충분치 않으므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제는 전동휠체어 제작 시부터 조명등(주행등, 방향지시등)과 반사판 장착을 의무화해 야간 이동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조명등과 반사판 같은 장치만 부착해도 차량 운전자들이 예상 움직임을 알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전동휠체어 운전자의 안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오인수

주차 시 연락처 꼭 남겨주길

파출소에서 근무하다보면 하루에도 수 차례 주차문제로 인한 신고가 들어온다. 그 중 가장 많이 신고 되는 내용은 골목길에 차가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를 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현장을 나가보면 대개 이런 차량들은 연락처가 아예 없거나, 연락처가 있어도 휴대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출동한 경찰관도 난감할 때가 많다. 견인을 해보려 해도 차량이 견인할 수 없는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야간에는 견인차량이 운행되지 않아 이 또한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컴퓨터로 차량 정보를 조회해서 일일이 집까지 찾아가 수백에 없다면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 불법주차자의 행동으로 다른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주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실령 잠시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연락처는 꼭 남겨야 한다. 또한 연락을 받으면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운전자의 양심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광주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김경순

기자수첩

검찰, 국민 신뢰 만이 살길

이번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절반인 9개 검찰청을 지휘하는 핵심 수뇌부가 일제히 취임사에서 한결같이 '내부 비리 척결'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기철
사회부 기자

그동안의 검찰 수뇌부 취임사는 '부정부패 엄단' 등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초점에 맞춰져 있었지만 9개 검찰 수뇌부들이 '내부 검찰'을 강조해 갈 끝을 자기 식구에게 돌림에 따라 진정 사건 처리 질타 등 커다란 쇄신과 고강도 수사가 기대된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 반영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불기소 등에 대한 적정성을 여부를 심의한다. 주요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음 수수·지역 토착비리 등 지역사회 이슈와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기 힘든 사건들을 심의위원회에 회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물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권고 사항'이라 검찰이 수용을 양해도 상관없지만 검찰이 100%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뢰를 주고 싶다는 것이 주지검장의 의지다. 이는 검찰의 과잉·편파 수사 이미지를 쇠약시키고 나아가 국민 신뢰만이 검찰이 살길이라는 생각으로 내부 공직기강을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 된다. 부디 이를 계기로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시민 심의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돼 국민들이 신뢰하고 희망을 주는 검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검찰의 신인 광주검장도 취임사를 통해 "소책난과(巢窠卵破:둥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법집행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 정의롭고 용기 있는 검찰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고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이 몇몇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뜻으로 검찰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와함께 주철현 광주지검장도 취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검찰 시민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검찰상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중요결정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YY머@세상

한국인 대 일본인1

세계 일주를 하던 대형 크루즈 선에서 불이나 배가 침몰했다.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구조된 사람들은 전부 23명이었는데, 그 구명보트의 정원은 20명이었다. 3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이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을 판이었다. 그래서 그 중 한 사람이 일어나 외쳤다. "대형제국 만세!!" 그리고 그 영국인은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걸 보던 프랑스인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나서 "영국인에게 내가 질 수 없지!! 프랑스 만만세!!"하며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이제 한 명만 없으면(?) 되는데, 모

두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두루마기를 입은 한 사내가 일어났다. 모두들 긴장하며 그를 지켜보며 숨을 죽이는데.....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친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는 기모노를 입고 있던 한 사나이 앞으로 가더니 발로 뺨 차서 그 일본인을 바다 속으로 밀어 넣었다.

등급으로 본 백수

- 1등급 - 명함도 없다.
- 2등급 - 할 일도 많다.
- 3등급 - 약속이 있다.
- 4등급 - 시간만 많다.

등급으로 본 대통령

- 1등급 - 국민들이 좋아한다.
- 2등급 - 야당에서 좋아한다.
- 3등급 - 여당에서만 좋아한다.
- 4등급 - 적국에서 좋아한다.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허물 드러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6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72년생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해도 된다. 84년생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일이 이루어진다.



卯

39년생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51년생 과음은 삼가하면 좋은 날이 된다. 63년생 하고 있는 일이 나 할심히 진행하라. 75년생 기회가 왔으니 바로 꼭 잡아라.



午

42년생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54년생 온종일 기분이 상쾌해진다. 66년생 우여곡절이 있어도 이익을 낼 운이다. 78년생 쌓은 공덕이 타인에게 돌아가는 격이다.



酉

45년생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 부러운 게 없다. 57년생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처리해야 한다. 69년생 주변에서 능력을 인정 받는다. 81년생 정상이 보이나 중단하지 말라.



丑

49년생 느긋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롭다. 61년생 당분간 금전문제로 교통이 따를 듯하다. 73년생 같이 사는 사람이 더욱 조심하라. 85년생 참고 견디면 좋은 소식이 있다.



辰

40년생 눈빛만으로는 마음 전달이 되지 않는다. 52년생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64년생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 76년생 쌓이는 스트레스는 바로 풀어야 한다.



未

43년생 시비다툼이나 구설수가 예고된다. 55년생 어느 것이 올바른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67년생 항상 대기만성을 염두에 두어라. 79년생 앞뒤가 꼭 막히는 운세이다.



戌

46년생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라. 58년생 철저히 도움을 요청해 보라. 70년생 숙여야 할 숙의 줄 알아야 한다. 82년생 마음을 비우면 사랑으로 채워진다.



寅

50년생 둘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넬 것. 62년생 마음이 즐거우니 춤이라도 추고 싶다. 74년생 새로운 길 찾으려 더 큰 어려움을 남게 된다. 86년생 해야 할 말은 꼭 표현하라.



巳

41년생 말보다는 실적이 훨씬 중요하다. 53년생 작은 일은 미루어 놓고 큰 일에만 열중하라. 65년생 맡든 가깝든 여행 운이 생긴다. 77년생 속 마음을 열어놓으면 좋다.



申

44년생 주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 56년생 흐릿하게 처신하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하라. 68년생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80년생 진절 한 행동을 조심할 것.



亥

47년생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59년생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71년생 과시는 피하는 것이 좋다. 83년생 도와주려고 발 벗고 나설 때 감행해야 한다.

수영장 부지 갈등 정치권이 부추겨서야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수영장 부지 논란이 접입각경이다. U대회 유치 신청 당시 수영경기장으로 수완국제수영장을 신중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민선5기 들어 부지 매입비가 비싸다며 다른 후보지를 모색하면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더니 이번엔 지역정치권까지 나서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하계U대회 수영장 입지 논란의 중심은 광주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쳐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을 자초한 탓이다. 매입비가 비싸 부지를 변경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사전설명은 필수였으나 이를 생략, 결국 시장이 지역민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했으니 씁쓸하다. 그 이후도 의아스럽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하계U대회 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서 수영장 부지로 남구 송하동을 명기한 것으로 전제

다. 수완수영장을 백지화하고 남구에 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특히 시장의 전 지역구가 남구였기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지역정치권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도 굽지 않다. 수완수영장이 백지화 조짐을 보이자 광산지역 정치인들이 반발에 앞장 서더니 이번엔 일부에서 '부지로 광산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남구 의원들이 나서 "수영장 부지로 남구가 아닌 다른 곳이 확정될 경우 22만 남구주민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으름장을 놔다니 허탈하다. 현재는 하계U대회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양궁장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용역이 진행중이다. 정치권이 나서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줄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부지선정 작업을 실시, 땅에 떨어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타당하다

광주 제2순환도로 이용자들로부터 하이패스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마다 요금소를 앞뒤고 오랫동안 대기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잔돈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이용자 증가추세를 감안해 하이패스 설치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2순환도로는 하루평균 4만~4만5,000여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총 5개 구간중 유료도로는 문흥~소태, 효덕~서창 두 곳이다. 이들 구간에서는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이 꼬리를 무는 장사진이 연출된다. 통행료를 계산하려는 차량들이 멈춰서는 탓에 정체가 극심해지는 것이다. 고속국도의 경우 하이패스 사용이 보편화됐다. 그런데도 하이패스 사용에 익숙한 운전자들이 2순환도로 요금소에서는 멈춰서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수도권지역의 순환도로와는 사

이 달라 외지에서 온 차량들은 당황해하기 일쑤다. 도심통과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건설한 순환도로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겠다. 광주시는 하이패스 설치를 타진했다고 한다. 도로공사와 순환도로 관계자가 논의를 한 결과 설치비용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엔 순환도로 회사의 자본구조 변경문제가 불거져 법적 분쟁도 예고돼 있다. 한마디로 비용이 많이 들고 회사 환경상 하이패스의 설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를 미룰 일은 아니다. 이는 도심을 우회하고 도로 도심통과 이상의 속도를 빠르게 해 교통체증을 막으려는 순환도로 건설 취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용객 증가와 맞물려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이패스를 설치해 차량통과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사장 발행·편집인 申龍浩 편집국장 李斗憲

대표 전화 (062)720-1000 · 구독 신청 및 배달사고 720-1098-99

기사 제보 (062)720-1050-56	사회2부 (062)720-1043-44	서울지사 (02)704-2166
F A X (062)720-1080-82	문체부 (062)720-1070-72	F A X (02)704-2167
논설실 (062)720-1032	전산팀 (062)720-1033	인쇄처 다일 인쇄
정치부 (062)720-1060-62	사진부 (062)720-1040	E-mail:jndn@chol.com
경제부 (062)720-1065-67	광고국 (062)720-1016-17	
사회부 (062)720-1050-56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4-9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전화 : (062) 720-1075
- 팩스 : (062) 720-1080-82
- 이메일 : jndn@chol.com

긴급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3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학대 예방센터 1577-1391
- ▷ 노인학대 예방센터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39
-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생활정보전화

- ▷ 우체국민원 1300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자원봉사센터 1365
- ▷ YWCA(여성법률상담소) 527-0011
- ▷ 인광의료원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가정위탁지원센터 351-1206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 광주종합버스터미널(ARS) 360-8114
- ▷ 월드컵내 1544-7788
- ▷ 대한항공 광주공항 942-0111
- ▷ 아시아나 광주공항 941-5511
- ▷ 전곡여객터미널 1544-1114
- ▷ 전남도청 (061)286-2000
- ▷ 광주시청 223-3000
- ▷ 전남대병원 220-6900
- ▷ 조선대병원 220-3114